



생명콘서트 오프닝에서 7개 종단 대표들과 주요 내빈이 '생명, 함께 심는 행복' 종교문화축제 슬로건 글자박스에 유기농 곡식을 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유기농엑스포 부근 입석마을 사과농장에서 사과수확을 하는 자승 스님. 이후에는 지역 농민과의 오찬을 가졌다.

종교 · 유기농 만난 '화합 · 공존'의 한마당

종지협, 19일 괴산서 '제19회 종교문화축제' 개최

생명 사상을 기반으로 한 환경 문제는 현대사회의 모든 종교계가 안고 가는 화두 중 하나이다. 이런 종교의 생명 사상이 친환경 먹거리인 유기농 산업과 만났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의 한국 대표 종교 지도자 모임인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 자승, 이하 종지협)는 9월 19일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함께 제19회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생명, 함께 심는 행복의 씨앗'을 주제로 열린 이번 종교문화축제는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던 것과 달리 처음으로 지방에서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종지협의 종교문화축제와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콜라보레이션'은 괴산군의 요청과 노력으로 이뤄졌다. 올해 1월 임각수 괴산군수는 종지협 회장인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엑스포 참가를 요청했고, 2월에는 직접 자승 스님을 예방해 사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종지협은 3월 이사회에서 종교문화축제를 서울 정계천이 아닌 괴산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도 했다.

종지협의 '종교존'에는 화합과 행복을 2가지 주제로 꾸며졌다. 화합의 장에는 △사찰음식 맛보기(불교) △기독교 역사 인물 알아가기(개신교) △목주 만들기(천주교) △원불교 알아가기(원불교) △투호예 체험(유교) △이천식천 체험(천도교) △전통매듭 열쇠고리 만들기(민족종교) 등 종교체험부스가 설치됐다.

행복의 장에는 △종교동산 바람개비 만들기 △압화 부채 만들기 △토피어리 화분 만들기 △마법의 손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불교계가 준비한 이날 '사찰음식 맛보기'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괴산 개심사 사승 스님들과 신도들이 직접 준비한 '연잎밥 만들기'는 준비한 물량이 모자라 급하게 추가물량을 준비할 정도로 성황이었다.

사찰음식 맛보기에 참석한 박현순(전북 고창, 35) 씨는 "TV를 통해 사찰음식에 대해 알게 됐지만 직접 만들어 본 것은 처음"이라며 "시중에서 평소 먹던 음식과 다른 달백한 맛이 사찰음식의 특징이다. 유기농엑스포의 취지에 잘 어울리는 체험이었다"고 소

감을 밝혔다. 개심사 주지 석재 스님은 "사찰음식을 많은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음식은 현대인의 큰 관심사"라며 "음식은 곧 생명이고 사찰만큼 유기농 음식을 잘 다루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 스님은 "베트남, 필리핀 등 다문화 이주여성 이 직접 참여해 함께 준비했다"며 "남은 행사기간 동안 필리핀 · 베트남 · 중국 · 일본의 전통음식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함께 열려

첫 지역 개최... 종교 · 지역 상생 도모

종교관 별도 운영해 종교문화 체험

'사찰음식' 문전성시... 축제 '성공적'

지역 농민과 종교지도자들 만남도

생태적 삶은 '공존 · 화합'

이날 종교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생명나눔콘서트'였다. 이날 콘서트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유교 어윤경 성균관장, 천도교 박남수 교령, 민족종교 한상운 회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종지협 지도자들과 주요 내빈은 '생명 함께 심는 행복' 9개의 글자 통에 유기농 곡식을 부어 제19회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의 슬로건을 완성하는 퍼포먼스콘서트의 시작을 알렸다.

축제에 참가한 내외빈들은 종교문화축제와 유기농산업엑스포의 만남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서울을 벗어나 첫 번째로 개최한 종교문화축제가 생명사랑사상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유기농엑스포여서 더욱 뜻 깊다"며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하는 생태적 삶을 보여주는 것이 유기농이다. 이는 공존과 화합의 마음으로 개최하는 종교문화축제의 의미와 같다"고 말했다.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종교문화축제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종교간 소통을 유도해내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라며 "이번 종교문화축제의 주제인 '생명, 함께 심는 행복의 씨앗'을 통해 축제에 참석한 모든 분이 생명의 고귀함에 동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콘서트에서는 대북, 사물놀이, 퓨전 국악, 뮤지컬 갈라쇼, 관악 퍼포먼스를 비롯해 초대 가수 홍진영, 박상철 씨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더욱 높였다.

종교, 農家의 어려움을 듣다

이날 종교문화축제는 종교와 농민들의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됐다. 이는 도시에서 진행됐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종지협 종교 지도자들은 괴산군 연풍면 농산물 간 이집시장에 모여 직접 사과 수확을 하며 농민의 수고로움을 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지역 농업인과 오찬도 진행됐다.

오찬에 참석한 이명숙 여성농업인회장은 "올해는 가뭄이 심해 낙과가 많았다"며 "이상기온과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만 즐기면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청정한 농산품 수확을 위해 묵심양면 노력하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수고로운 땀방울은 절대 자산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청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도 종교와 농촌의 만남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황경숙 108산사순례회 신도는 "이런 좋은 취지의 행사를 오늘에 알게 됐다. 각 종교계가 화합해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종교문화축제가 다른 지역에도 개최돼 지역민과 함께 소통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괴산=이계섭 수습기자

종교 · 지역 상생의 장 열려

생태적 삶을 기반으로 하는 유기농 산업과 생명사상을 중시하는 종교계와의 만남은 성공적이었다. 오전 10시부터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마련된 '종교존'에는 많은 사람이 종교문화체험을 위해 몰려들었다. '선묵해자 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 산사순례 기도회'에서 2000여 명의 불자들이 도행사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종교문화축제에 참석한 종지협 지도자들은 각 종교가 준비한 문화체험 부스를 돌며 서로의 종교문화를 체험하고 소통 · 화합의 의미를 다지는 시간을 갖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교 대표들이 '사찰음식 맛보기' 불교문화체험부스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 관람하고 있다.



행복의 장 '종교동산 바람개비 만들기'에 참가한 관광객들. 행복의 장 행사에는 △종교동산 바람개비 만들기, △토피어리 화분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팔공산 승시축제

僧市

팔공산 산증전통장터

| 주 회 | 대구광역시 Ⓜ 대인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 주 관 | 팔공산 승시축제 운영위원회 · 대구불교총연합회 · (사)대구불교총연합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053)980-7900, 986-9575

팔공산 승시축제

2015.10.7(수) ▶ 10.11(일)

개막법요식 : 10월 8일(목) 17시

팔공총림 동화사 경내

승시국화축제

2015.10.1(목) ▶ 10.31(토)

팔공총림 동화사 약사여래대불마당

축제기간 주차장 및 셔틀버스 안내

승시축제 기간 중 교통혼잡으로 기암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봉화문주차장**과 **씨네80자동차극장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www.seungsi.com

팔공산의 역사문화 세계인의 품속으로

만남, 나눔, 소통, 화합 (붓대로 살자)